

보도시점 2023. 10. 12.(목) 11:00
< 10. 13.(금) 조간 >

배포 2023. 10. 12.(목)

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 신흥시장 단기수출보험 50조 원 공급, 정부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 수출지원기관 합동으로 10개 수출유망국에 무역사절단 신규 파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0.12.(목)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전 부처의 수출지원 기관이 참석하는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이 본격 논의되었다.

먼저 수출지원기관들은 방산(이집트), 인프라(폴란드, 방글라데시), 의료기기(미국, 인니) 등 소관 품목별로 신규 수출유망시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로드쇼, 현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시장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공급(50조원, 23년) 공급 및 보험 한도 우대(2.5배), 수출다변화 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가점·금리 우대지원 등 수출다변화 기업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다변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10대 유망국을 선정하여 관계 수출지원기관 합동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수출지원기관은 유망 시장별 소관 품목 수출 기업을 모집하고, 현지 로드쇼·세미나 등 현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무역사절단 파견이 실제 수출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수출지원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현황 점검이 진행되었다. 8월 기준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잔여 예산은 대형 수출상담회, 플랜트사업 수주지원 등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금일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진입, 4.4% 감소율을 기록한 9월 수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은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들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이한솔 (044-203-4033)
			주무관	이지혜 (044-203-4037)

□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3.10.12(목) 14:00~15:30,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수출지원기관 본부장급 등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주재), 무역진흥과장 등

(수출지원기관) 코트라, 무보, 무협, 해외플랜트산업협회(산업부), 수은(기재부), 중진공, 기보(중기부), 해건협, KIND(국토부), 콘진원(문체부), aT(농식품,해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 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지식재산보호원(특허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사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

○ (논의내용) ①「기관별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계획」

②「무역사절단 선단화 방안」

③「'23년 수출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24년 정부안 점검」

④「수출지원기관 간 협업·연계 실적 점검」

□ 세부 진행계획

시간 ('90)			세부 일정	비고
14:00	14:05	5'	• 모두 발언	무역투자실장
14:05	14:55	50'	• 안건발표	기관별 순차 발표
14:55	15:25	30'	• 참석자 간 토의	
15:25	15:30	5'	• 마무리 발언	무역투자실장